

성명서

-일본시민사회 호소에 대한 지지 성명-

최근 한 중 일 사이에 독도(일본명 竹島)와 센가쿠열도(중국명 釣魚島) 등을 둘러싼 분쟁이 이른바 ‘현상유지’ 수준을 벗어나면서 영토내셔널리즘이 폭발적으로 악순환 되고 그것이 군비 확산의 악순환으로 에스컬레이트되면서 냉전 후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경제교류와 문화교류의 축적이 갑자기 흔들리며 후퇴하고 있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소수 극우 세력의 「식민지적 반동」을 극복할 동아시아의 정의의 힘이 이렇게 약한가 하고 한탄하였다.

그러나 일본시민사회의 지식인들이<영토문제의 악순환을 멈추자>는 호소, 특히 영토문제는 일본 침략주의의 산물로 역사청산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을 보고 그 양식과 용기에 감명을 받는다.

또한 이에 호응하고 연대하는 중국 지식인들의 성명, 대만 지식인들의 성명, 그리고 개별 작가들의 기고문을 보고 깊게 공감한다. 동아시아의 과거사 극복은 가능하며 분쟁의 씨앗은 협력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한국에서도 일본 시민사회 지식인들의 성명의 기본 취지에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내며 함께 연대의 손을 굳게 잡자고 호소하고 싶다.

국가 사이의 경계를 뛰어넘는 동아시아 지식인 연대로 어두운 과거사의 횡포를 극복하고 진실과 화해의 동아시아를 건설할 희망을 공유하고자 한다.

2012. 10. 17

한일지식인공동성명 한국서명자(595명)일동

공동대표 김영호(단국대 석좌교수)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김진현(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위원장)

남시욱(세종대 석좌교수, 전 문화일보 사장)

이태진(서울대 명예교수)

정창열(한양대 명예교수)

김경희(지식산업사 대표)

이장희(한국외국어대 교수) 외

< ※이 성명은 10월 15일의 발기인 회의에서 결의하여 인터넷 회의를 거쳐 17일 합의 발표함>